거꾸로 요술방망이 하나님 이름

(호세아 9:1~17)

1.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2.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3.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4.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5.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 말씀 중심으로 <거꾸로 요술방망이 하나님 이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거꾸로 요술방망이 하나님 이름'
오늘 제목은 "도깨비방망이"라는 설화에서 따왔습니다.
마음이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개금열매가 떨어진 것이 보이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웠습니다. 또 줍다보니 부모님께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줍다보니 아내에게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녀들에게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신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금열매를 줍고 나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오두막을 찾아 비를 피하던 나무꾼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깊은 잠에 들었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떠보니 도깨비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도깨비가 들고 있던 방망이를 두들길 때마다 술과 음식이 잔뜩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나무꾼이 너무 배가 고파서 낮에 주웠던 개금열매를 꺼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껍질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흥겹게 놀던 도깨비들이 놀라서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나무꾼이 도깨비가 놀던 자리에 가보자 방망이 하나가 떨어져있었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도깨비방망이로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에게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름은 선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생일대의 최대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귀한 보배이자 은총인 이유는 바로 요술방망이기 때문입니다.

설화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봅니다. 나무꾼이 하나님 이름의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었던 선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도깨비들이 도깨비방망이를 휘둘러서 산해진미가 쏟아져 나온 가운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무꾼도 산해진미를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싶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잘것없는 개금열매를 깨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의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산해진미가 전혀 먹고 싶지 않는 마음의 채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꾸로 요술방망이입니다. 도깨비방망이는 두드릴 때마다 원하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의 요술방망이를 붙잡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도깨비방망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잘 버는 배우자가 도깨비방망이일 수 있습니다. 명품백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배우자를 쥐고 흔듭니다. 그러면 갖고 싶었던 명품백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명품백이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에 배우자를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요술방망이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명품백이 전혀 갖고 싶지 않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온통 명품백을 자랑하며 다니는 중에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주눅 들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선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기에 도깨비방망이에 대한 바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 요술방망이만을 사용하라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도깨비방망이로 믿어지는 대상들을 붙잡고 마음대로 두들기며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지만, 선민들은 세상 것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앞서 나무꾼의 설화를 살펴보았는데 그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를 얻고 나서도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요행이 이루어졌을 때에 인간성을 유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꾼도 끝내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행여나 나무꾼 자신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악한 길로 빠져들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들을 원하는 대로 얻기를 바라지만 실은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재벌과 같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사람은 짐승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 채 늘 불만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거꾸로 요술방망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욕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마음은 달라집니다. 갖고 싶지도 않고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마음가짐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7절을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말씀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라는 부분은 북 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어리석고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여겼던 이유는 호세아 선지자가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형벌과 보응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작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의 북 왕국 이스라엘은 최전성기였습니다. 이런 풍족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호세아 선지자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매도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이 좋아하던 세상의 가치를 빼앗는 말을 했기 때문에 원한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북 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적나라해서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정말로 이렇게 말해도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타작마당에서 이방인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노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타작마당은 추수의 기쁨이 있는 장소입니다. 땀 흘리며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두는 추수의 기쁨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꼭 농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결과를 통해 기뻐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양육을 농사에 비유하기도 하고, 사업이나 일이 잘 되어도 풍년이 든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추수 즉 수고의 결실로 얻는 기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이방인의 행위로 비난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미친 사람으로 보일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기쁨을 누리려는 풍요에 대한 갈망 자체가 음행이었습니다. 음행은 풍요에 대한 갈망이며 음행의 값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손에 쥐게 된 곡식이라는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좋아하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때에 돈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음행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어들인 돈은 음행의 값입니다. 수고하여 돈을 번 것이 창녀가 몸을 팔아서 화대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1절을 이해하기 쉽게 의역해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풍년이 와서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다고 해서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지 말 것이다.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탈곡하며 얻는 기쁨은 이방인들에게서나 찾아 볼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쁨이 선민에게서 보이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배반은 무엇으로 기뻐하고자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보자면 타작마당에서 수확을 기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음행과 배반이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야 말로 부자연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고생하여 키운 농작물을 수확할 때에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해야할 때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슬픔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타작할 곡식이 너무나 적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곡식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요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잘되어 큰 흑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가로써 흑자를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나를 배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2절에서 이어집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타작마당에 이어서 포도를 밟아 짜내어 술로 만드는 술틀이 나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르지 못하리라는 것은 곧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오직 선민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로 인한 기쁨은 곧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의식 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것들을 가짐으로써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져서 마음을 채웠다고 여길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기쁨과 만족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마음이 만족하게 되면 기쁨은 생겨납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의식 속에 담으면 돈을 가지고자 추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의식 속에 담으면 실제 하나님을 가지고자 추구하게 됩니다. 돈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돈, 건강, 형통 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돌덩이를 얻으려고 금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돌덩이와 같습니다. 문제는 마음에서 이것을 체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감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요술방망이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조차 바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만족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요술방망이를 붙잡음을 통해 취직, 승진, 형통 등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마음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돈도 없이 취직도 못한 채 몸이 아픈 상태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것들이 마음에서 기쁨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대로 돈도 주실 것이며 취직도 시키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실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선민에게 운명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결핍이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 요술방망이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꾼이 눈앞에서 도깨비들이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때에 마음에서 결핍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결핍이 생겨납니다.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없을 때에 돈 때문에 결핍을 느낍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결핍의 순간에 선민은 하나님의 이름 요술방망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결핍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선민들에게서 이러한 이김과 자유로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풍요에 대한 결핍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타작마당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음행한 결과가 3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땅은 곧 가나안 복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 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지파로써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앗수르의 침공을 받아 BC.722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앗수르의 노예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행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으로 인해 생겨난 마음의 결핍의 문제는 돈 자체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죽을 때까지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을 얻음으로써 마음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건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은 선민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민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뿐입니다. 돈의 결핍이 느껴질 때에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으로 돌을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으로 인해 결핍이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 요술방망이를 들고 “돈에 대한 결핍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라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이 문제일 때에도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요술방망이를 두드려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는 건강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죽게 되더라도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마음이 답답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 요술방망이를 붙들고 “자녀의 형통과는 무관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족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후에 자녀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선민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매 순간을 대처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랑비 같이 마음을 적시는 작은 사건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을 통해 세상을 승리하고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족되는 바람에 붙잡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곧 내게 결핍을 가져다주는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에 대해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 마음에 결핍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기 위해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십자가 생활화를 반복

하며 살아갈 때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내 마음에 결핍감을 안겨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기적과 같은 하나님 이름의 요술방망이를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구하므로 이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